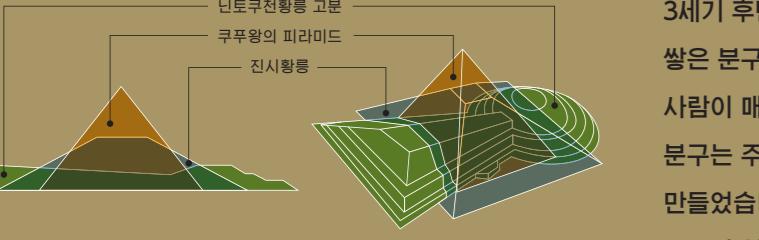


세계유산 모즈·후루이치 고분군 —고대 일본의 분묘군—

모즈·후루이치 고분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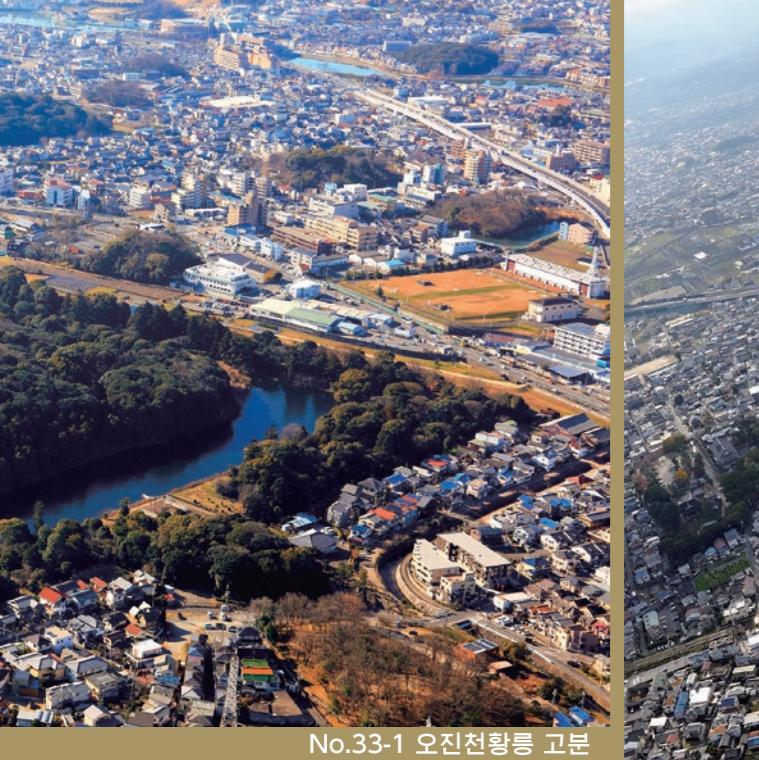


고분이란



난토쿠천황릉 고분	쿠포왕의 피라미드	진시왕릉
전장	약 486m	약 230m
높이	약 35.8m	약 146m
제적	약 140만㎡	약 260만㎡
		약 300만㎡

3세기 후반부터 6세기 후반 사이에 일본 열도에서 활발하게 축조된 흙을 높이 쌓은 분구가 있는 무덤을 '고분'이라고 합니다. 고분에는 당시 신분이 높은 사람이 매장되었습니다. 분구는 주위의 흙을 파내고 쌓아올린 후 그 경사면에 돌을 깔아 만들었습니다. 파인 부분은 주위보다 낮은 해자가 되었습니다. 고분의 형태는 위에서 보면 열쇠 구멍 형태를 한 전방후원분, 가리비와 같은 모양의 가리비형 고분, 둠형태의 원분, 사각형의 방분 등 종류도 많고 크기도 10m 정도의 작은 것부터 400m 넘는 거대한 것까지 다양합니다. 고분이 활발하게 축조된 이 시대는 '고분시대'라고 불리고 이 시대 이후 일본 열도에서 고대 왕권이 형성되어 갔습니다.



No.33-1 오진천황릉 고분



No.26 나카쓰히메노미코토릉 고분

후루이치 지역 —하비키노시·후지이데라시—

후루이치 지역은 오사카부 동남부, 후지이데라시에서 하비키노시에 걸쳐 동서·남북 각 4km 범위에 펼쳐져 있습니다. 분구 길이 400m를 넘는 거대한 전방후원분의 오진천황릉 고분(일본 제2위)을 비롯한 26기 24건의 고분이 세계유산 구성 자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.

